

미지의 것은 미지의 것을 통하여 : 이윤이의 예외자를 위한 연금술

안소현

아트 스페이스 풀 디렉터

1.

어두운 공간에 의료기기를 닮은 것들이 빛나고 있다. 살려면 뛰어넘어야 할 것 같은 하얀 광선막대기 몸을 스캔하고(〈허들 스캐너〉), 그 너머로 장기의 엑스레이와 엠알아이 사진이 번쩍거린다(〈등 치고 간 내기〉, 〈검은 간 토기〉). 구석에는 적외선 온열 치료기처럼 붉게 빛나는 대문자 A가 서 있다(〈Big A〉). 한 쌍의 A가 보행보조기처럼 나란히 서있었지만, 다가가보니 몸을 기댈 수 있는 A는 하나뿐이고 다른 하나는 검은 거울에 비친 상(像)이었다. 곧 왜 A가 둘인지 알 것 같다. 반투명한 분홍벽에 알콜 중독 치료 모임(Alcoholic Anonymous)의 12단계가 영사되기 때문이다(〈AA 12단계〉). 그리고 옆에서는 영상(10월에서 6월)이 ‘너’의 이야기를 복잡다단하게 풀어놓고 있다.

이것들은 단서를 품었지만 아직 답을 주지는 않은 사물들, 수수께끼다. 이 사물들이 일관되게 몸의 불안전함과 관련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게다가 이윤이의 지난 개인전 《내담자》(2018)를 본 사람이라면, 혹은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연스럽게 이 수수께끼의 답이 영상 속에 있으리라 짐작한다. 사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미지의 수수께끼를 이야기로 풀려 한다. 적어도 이 전시에서는 그 해법을 틀리지 않다. 전시 서문에서도 이 설치들은 영상에 대응하는 은유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제 영상을 주의 깊게 보고 수수께끼를 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나는 이런 전시 방식을 늘 의심해왔다. 미술이 왜 작가가 내놓은 수수께끼를 ‘푸는’ 일이 되어야 하는가? 해석과 비평은 기껏해야 답을 맞추는 일인가? 이 설치들은 왜 온전히 스스로의 조형으로 말하려 하지 않고 영상의 보조장치이길 자처하는가? 혹시 이것들은 영상에 에너지를 모조리 쏟아 넣어 놓은 작가가 그저 전시공간을 물리적으로 채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군더더기는 아닌가? 영상 내용의 일부를 설치작품으로 물질화하는 것은 요즘 흔한 전시 방식이 되었다지만, 그때 영상과 설치의 서로에게 필연적인가? 의심은 병처럼 자라났다.

2.

〈10월에서 6월〉은 이상행동으로 병원에 입원한 옛 친구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작가는 연금술에 관한 책 『현자의 장미원(Rosarium philosophorum)』(1555)에 실린 20점의 목판화를 재해석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연금술이라니, 의외다. 이윤이가 16세기 독일에서 출판된 책을 2019년의 한국으로 불러냈다는 사실보다, 연금술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들을 쌓아 두고 올라가야 하는 소재를 골랐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그동안 이윤이는 자각몽, 전생처럼 비의적 세계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그 세계를 얇은 커튼을 걷듯, 안개를 헤치듯 가볍게 넘나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엔 선택한 연금술은 지적 매혹을 보장해주지만 약관이 매우 긴 보험 같은 세계였다. 의심으로 가득했던 나는 도리 없이 일단 약관부터 읽기 시작했다.

연금술 하면 ‘컴컴한 실험실에 갇힌 터무니없는 탐욕’ 같은 상투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지만, 연구자들은 연금술이 단순히 금을 모조하거나 위조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했던 ‘현자의 돌’은 물질과 정신의 변화 모두와 밀접한 상징이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현자의 돌을 얻기 위한 물질의 변화를 상상할 때 정신의 변화 과정을 떠올렸다고 한다.¹ 그리고 물질에서 기대하는 변화의 과정을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내적 치유를 혼란하기도 했다.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 연금술적 의례가 가져다 주는 인간의 변화를 읽는다. “비의의 의미와 궁극 목적은 인간의 변환이었다. 통과의례적 죽음과 재생의 체험에 의해서 [인간은] 존재론적 체계를 바꾸게 된다.”²

칼 융(Carl Gustav Jung)은 더 구체적인 대상에 연금술의 변화를 적용해보려고 했다. 그의 『전이의 심리학』은 분석심리학에서 분석가와 피분석자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독특한 무의식적 감정 교류를 연금술 경전에 나타난 대극 합일의 과정으로 설명한 논문인데, 이때 그가 참고한 연금술 경전이 바로 이윤이를 사로잡은 『현자의 장미원』이다. 집단적이고 원형적인 무의식의 존재를 역설했던 융은 연금술사들이 오랜 세월 물질의 변화과정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 상징들을 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융은 분석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개성화/개체화(individuation)³ 과정을 『현자의 장미원』의 20장의 목판화에 나타난 연금술의 4단계, 즉 흑화-백화-황화-적화로 나누어 설명했으며, 이윤이는 바로 이 개체화의 4단계로 〈10월에서 6월〉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고 한다.

‘개체화’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혹은 너무 당연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개념이다. 그것은 그저 ‘어떤 것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을 가리킨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형상과 질료를 놓고 다투었고, 질베르 시몽통(Gilbert Simondon)은 그 원리를 찾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것들을 비판하면서, 물리적, 생물학적, 정신적 차원들을 하나씩 짚어 나갔다. 융이 파고들었던 것은 물론 ‘심리적’ 개체의 발전과정으로, 그는 개체화를 정신이 개인적·집단적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으로 옮겨 가서 온전한 인격과 동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반적 차원에서 개체화는 개별적 존재들이 형성되고 [다른 존재들로부터] 차별화하는 과정이다. 특수한 차원에서 개체화는 일반적이고 집단적인 심리로부터 구별되는 존재로서, 심리적 개체의 발전과정이다.”⁴

“개체화에는 주요한 두 측면이 있다: 첫째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통합의 과정이고, 둘째는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되는 객관적 관계 맺기의 과정이다.”⁵

여기서 핵심 개념의 하나인 ‘통합(integration)’을 융은 종종 ‘온전함(穩全, wholeness)’으로 설명한다. 개체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평온하며 갈라져 있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설치부터 영상까지 도처에 불안전함을 펼쳐 놓은 이윤이는 대체 어떤 개체화를 꿈꾼 것일까? 이상행동으로 병원에 입원한 옛 친구의 행복할 결말을 기대해도 좋은 것일까? 답을 얻으려면 연금술의 4단계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3.

돌아보니 전시장에 설치된 의료기기와 닮은 것들은 대부분 흑색황적의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색깔 배치 따위가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라며 영상 〈10월에서 6월〉 앞에 자세를 고쳐 앉고 집중하기 시작했다.

머리를 가득한 하늘을 배경으로 자막이 올라간다. 자막의 내용은 군중 속에서 만난

옛 친구는 어딘가 좀 이상했고 결국 갈등이 폭발해 가까운 친구와 가족에 의해 병원에 갇혀 일생동안 자신의 심장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금술에서는 대국의 물질이 부딪혀 폭발하는 단계를 흑화라 한다. 분석심리학자들은 흑화를 심리적 갈등과 혼란, 상실, 우울의 상태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 흑화를 지켜보는 화자, 즉 ‘나’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 화자는 군중 속에서 만난 ‘너’가 어쩐지 섬뜩했고 싫고 직감적으로 몸을 사리게 되었다면서도, 굳이 ‘나 역시’라고 하며 너와의 유사성을 찾는 사람이다. 네가 흑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나는 어쩐지 너가 아닌 나의 삶을, 혹은 삶에 파묻혀버린 자신을 냉소한다.

“나 역시
이동했다가 돌아오고
소리쳤다가 우물거리며
구부러져서 잠이 들고
소비하고 배출하며 지낼 뿐이었다”

장면이 바뀌어 울타리를 높게 둘러친 공간에서 ‘이 사람’이 서성이고 있다. 이번에는 자막이 아닌 목소리가 같은 형식의 문장들을 아주 작게 속삭이는데, 이번에도 화자는 ‘이 사람’과의 유사성을 반복해서 말한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고난을 피해 보려 하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 있다 [...]”

낮선 목소리가 그가 “좀 이상하지 않냐?”고 묻고, 또 다른 목소리가 그래서 (그의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다고 대답한다. 카메라도 속삭이는 목소리도 낮선 목소리들도 모두가 같은 이 사람을 관찰하고 있다. 대상을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분석심리학에서는 연금술의 백화 단계로 간주한다. 그 전형이 꿈의 관찰과 해석이다.

그런데 이 이성적 관찰의 단계에서도 예외자가 아닌 관찰자를 향한 시선이 있다. 어느 성당의 실내가 보이고 그 안에 얼굴에 하얀 가면을 쓴 사람의 영상이 동그랗게 ‘삽입’되어 있다. 가면은 사실 흔한 미용 마스크 팩인데, 인물은 팩을 붙여서 그런지 포렐하지 않은, 어쩐지 성의 없는 발음으로 누군가에게 카톨릭 의식에 사용하는 와인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는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이성적이지만, 실없는 킁킁거림으로 끝을 맺는다.

“그럼 레드 와인이었는지 화이트 와인이었는지? 예수님의 피인데...?”

믿음의 맥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채 종교적 공간 안에 억지로 ‘삽입’된 그들의 대화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우스꽝스럽다.

비로소 작가가 인용한 <현자의 장미원>의 도상이 등장한다. 노인과 종이 왕관을 쓴 두 아이가 백포도와 적포도가 놓인 탁자에 둘러앉아 있다. 카메라는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포착하고 자막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계획과 동기를 밝힌다.

“우리는 성장하며 아파졌기에 (실패를 선언하며)
아이들에게 예행연습을 시켜보기로 한다

이는 능동적 정신치료에 해당하는 황화의 단계이다. 피분석자가 이 단계에 접어들면 더 체계적으로 자기를 탐구하며 의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한다. 두 아이는 번갈아 가며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오른쪽 아이가 “양팔을 권 사람과” 라고 하면 왼쪽 아이가

“한쪽 팔만 권 사람의 차이”라고 말하는 식이다. 두 아이의 자세, 수염, 리본 등 <현자의 장미원>의 목판화를 채우고 있던 상징들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단어처럼 나열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윤이는 영상 위로 지을 수 없는 실패의 기운을 덮어놓았다. 또박또박 박자를 맞춰가며 한 구절씩 메기고 받던 아이들은 마지막에 “유사성 사람 아니면 삶”을 합창하는데, 고대 희곡의 규칙을 따르자면 코러스는 삶에 대한 현묘한 통찰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원래 [유:사성]으로 발음되어야 할 이 단어를 [유:사:성]으로 어설프게 발음한다. 말은 쉬워도 실전은 어려운 온갖 차이를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발음은 힘겹고 어쩐지 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반복하고 연습시켜도 그들은 끝내 쓰러지지 않는 법을, 아파지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듯.

마침내 ‘너’가 병원에서 쓴 일기가 시작된다. 화면 하단을 가득 채운 탁구대와 펜스 위로 누군가 탁구를 치고 있으며 상단에는 손으로 쓴 일기가 이불 위에 낙서하듯 합성되어 한 장 한 장 지나간다. 간간이 모자이크 처리된 너의 모습과 네가 찍은 듯한 병원 사진들이 섞여 들어가는 가운데 너는 탁구부터 담배, 좋아하는 운동화, 그날의 기분,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한다. 너는 볼펜의 색을 자주 바꾸고, 말줄임표와 이모티콘을 많이 쓴다. 너는 병원에서 나갔다 돌아오지 않는 다른 환자, 병원 밖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한다. 아끼는 운동화를 애타게 기다리기도 하지만 사연 많은 운동화를 다른 입원환자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너는 치료자에 대한 전형적인 전이를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지만 너의 일기는 6월27일에 멈춰버린다.

다시 노인과 두 아이가 있는 곳이다. 아이들은 다시 어색하게 문장을 읊조리는데 그 내용은 <현자의 장미원>의 마지막 부분을 묘사하는 듯하다. 노인이 아이에게 액체를 따라주고 숟가락으로 떠먹이면 아이는 맛이 없는지 찡그리면서도 순순히 받아먹는다. 연금술에서 적화의 단계는 완전함에 가까워지는 단계, 분석심리학에서는 치료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는 단계이고, 개(체)성을 편안하게 유지하면서도 집단에 기여하거나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 하지만 이윤이는 이 순응의 단계, 완ちに 다가가는 깨달음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좀 다르게 설정한다. 인용한 중국 속담은 깨달음을 주는 말투로 되어 있지만 통념에서 미끄러져버린다.

“간장은 자신이 되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다
휴식은 우리 자신이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때
건강을 위해 질병을 교환하라”

질병을 교환하라니, 가까스로 다다른 연금술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윤이는 불완전함을 다시 불러들인다. 다섯 사람이 알콜 중독 치료 모임에서처럼 서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며 인사를 나누고 ‘의자 앉기 게임’을 한다. 얼굴을 가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신호음이 울리면 의자를 차지하는 게임을 하면서 의자를 하나씩 없애면 마침내 한 사람만 남는다. 그는 끝내 살아남았지만 어쩐지 처음보다 더 외로워 보인다. 그렇게 이윤이의 연금술은 마지막 적화의 단계에 이르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완전함과는 더 멀어져버린다. 너의 진짜 마지막 일지는 7월7일에 쓰였지만, 웬지 너는 날짜를 지웠다. 작품의 제목도 <10월에서 6월>이라 이 사라져버린 7월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너에게 7월이 오긴 왔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다. 영상의 첫 부분부터 ‘너’의 패유를 진심으로 바랐던 우리는 조금 허무하다. 완전함이란 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만 남다. 흑화-백화-황화-적화를 거쳐 도달한 곳이 결국 질병과 외로움이라니.

4.

허무함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우리는 연금술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 학자들은 “모호한 것은 모호한 것을 통하여, 미지의 것은 미지의 것을 통하여”라는 연금술의 설명방식이 18세기 이후의 계몽주의나 화학의 과학성과 공존할 수 없었다”⁶고 했다. 서로 다른 물질의 결합에서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지금이야 비의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런 생각은 심리학과 물리화학을 완전히 분리한 이후의 사고에 의한 것이다. 반면 “그 당시에는 [질료와 정신 사이의] 양자택일은 없었고 오히려 질료와 정신 사이에 중간 영역이 있었다”⁷고 한다.

여기서 이 전시의 초입에서 품었던 의심이 조금 부드러워진다. 의뢰기기를 닦은 설치들은 공간을 채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술이 간직한 질료와 정신 사이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날 디지털 세계의 예술은 영상을 (부적절하게도) ‘비물질 예술’이라고 부르면서 물질의 자리를 좁혀 놓았다. 예술가들은 여전히 물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만 물질이 어떻게 정신의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물질과 정신의 변환을 어떻게 맞물리게 할 수 있는지 캐묻기보다는 물질을 개념에 충실하게 복종하는 도구로 만들려 한다. 이윤이의 설치들은 조금 달랐다. 그것들은 불완전한 몸을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일 뿐만 아니라 물질과 정신의 중간에 위치하려 애쓴다. 그것들은 의미로 변환되기 위해 몸부림 치지만 질료와 선을 굽지 않는다. <등치고 간 내기 (Pat on the Back and Snatch the Liver)>에서 ‘간’은 속담에서 종종 그러하듯 속아서 빼앗긴 것의 전형이지만, [간 내기]라는 소리가 [간 토기]라는 비슷한 소리를 이용해 ‘문질러 광을 낸(burnished)’이라는 물성 충만한 의미를 일깨워준다(<검은 간 토기(Burnished Black Liver Pottery)>)). 그것들은 확실히 가벼운 말장난이지만 무의미는 아니다. 닦은 기기들이 그랬듯 닦은 소리들은 물리적 기포의 존재감을 기의에 파묻어버리지 않는다. 심지어 동음이의의 장난은 앞뒤가 다른 인간관계와 고장난 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의 헛짓이라는, 정규적 기의는 엄두도 못 낼 이상한 의미를 남겨두지 않는가. 전시 제목인 “씩 다 살아졌음”도 영상 속 ‘너’가 쓴 병상 일기에 나오는 동음이의의 비문인데, 그 어긋남이 빚어내는 복잡한 심산이 어디 적법한 문장들로 묘사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 장난 같은 설치와 제목들은 질료로부터 발생하는 가장 원초적인 기호들을 재주껏 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빨간 A자는 걸음을 보조하기 좋은 형태와 재질로 되어 있고 심지어 치료효과가 있다는 원적외선을 내뿜으며 거울에 반사되어 AA(알콜 중독 치료 모임)라는 몸의 중독을 정신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불러낸다. 그 AA의 단계를 보여주는 스크린은 분홍색 암염벽돌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황, 수은과 함께 연금술의 기본 물질(원질)인 소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며 찾는 찹질빵의 인테리어 마감재이기도 하다. 바깥 전시공간(윈도우 갤러리)에서도 수평계의 빨간 레이저 광선이 연금술의 상징형태인 육각형의 하얀 타일을 반듯하게 훑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규범 안에 들어온 듯 안도할 때, 소금으로 된 육각형 옆에서는 하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현자의 장미원>에 따르면 구름은 혼의 상승이 일어나는 시점에 등장한다. 이윤이는 이렇게 설치의 몸 하나하나에 꼼꼼하게 흑백황적색을 배치하여 되든 안되든 연금술적 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물질에 대한 순진한, 다시 말해 다수의 세계관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은 동음이의의 비문만큼이나, 병든 간의 엠알아이만큼이나 시적이다.

개념에 의해 완주되지 않는 몸은 미지를 간직한다. 한 비평가는 철저히 몸에 바친 시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몸은 엄연히 자아 그 자체이지만 동시에 자아의 변두리를 구성하는 타자이다. 한 사람에게 제 육체보다 더 낮은 것은 없으며, 제 의지를 그보다 더 멀리 벗어나는 것도 없다.”⁸ 몸은 그 자체로 타자이고, 그

지나치게 가까운 낮습을 통해 우리는 타자를 대하는 법을 배운다. 분석심리학자들도 연금술사의 작업은 명상과 상상을 통해 “내면의 대화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타인’ 즉 무의식으로부터 응답하는 목소리와 생생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⁹이라고 했다.

여기서 이윤이가 왜 ‘개체화’에 대한 연금술적 해석에 끌렸으면서도 그 마지막 단계에 완전함과 거리가 먼 상태를 배치했는지 조심스럽게 짐작하게 된다. 그는 어쩌면 “미지의 것을 미지의 것을 통해” 설명하는 연금술의 원리에서 불완전한 타자를 받아들이는 법을, 자신과 그의 닦음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옛 친구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는지, 그래서 무사히 퇴원했는지 알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연금술사가 물질을 대하듯 현자의 돌을 기다리듯 그의 한없는 개체화 과정을 지켜볼 뿐이다. 순식간에 금을 제조해낼 비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미지에 세계를 들여다보며 달라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와 묶이지 않는 예외자일 뿐이다.

문득 이윤이가 왜 “듣기에 너는 그곳에서 편안해 보였다” 했는지, 병원 속 세상을 관찰하는 너의 세심함과 간호사에게 초콜릿을 건네는 너의 다정함과 한정판 운동화를 고를 줄 아는 너의 세련됨을 그렇게 길고 자세히 다루었는지 알 것도 같다. 이윤이가 개체화의 마지막 적화 단계에서 왜 다시 질병을 교환하고 외로움을 남겨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는지 짐작이 간다. 시몽동이 개체화의 원리의 쟁점을 따지기도 개체화는 그 자체로 ‘과정’임을 망각했다고 했을 때, 완성된 개체(개인) 같은 개념이 얼마나 허망한 지 깨닫게 되었던 것과도 비슷하다. 물질을 서사의 한 요소로 설명해가면서 수수께끼를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나가기보다 물질과 정신의 중간 어디에 어떻게 남아있을 때, 동음이의어의 객적은 농담을 보며 가우풍 할 때 느끼는 것과도 닮은 것 같다. ‘씩 다 알아냈음’이나 ‘씩 다 고쳐졌음’이 아닌 ‘씩 다 살아졌음’은 그래서 그렇게 의심스럽게 낯설면서도 머물렀던 것이다. 그리고 보니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흑화-백화-황화-적화가 일어난 모양이다. 나는 그렇게 이윤이에 대한 의심과 관찰과 생각의 변화를 거쳐 어느덧 질병을 교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 이상익, 「‘현자의 장미원’에 나타난 전이와 개성화 과정」, 『심성연구』 33:(2), 2018, 99-140쪽.
2. 미르치아 엘리아데,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153쪽.
3. 분석심리학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individuation’을 ‘개성화’로 옮기지만, 이 개념은 스콜라 철학의 형상/질료 논쟁에서부터 시몽동의 물질과 생물의 개체화 과정, 베르나르 스티글러(Bernard Stiegler)의 정보사회 이론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개체화’로 번역되고 있다. 이윤이는 분석심리학의 개념에 집중했지만, 이 글에서는 그의 관심이 물질과 윤리학으로까지 확장됨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개체화’로 옮긴다.
4. Carl G. Jung, “Definitions,” *Collected Works* 6, par. 757.
5. Carl G. Jung, “The Psychology of the Transference,” *Collected Works* 16, par. 448.
6. 이상익, 위의 논문, 102쪽.
7. 이상익, 위의 논문, 103쪽.
8. 황현산, “소외된 육체의 고통-이성복, 『아, 입이 없는 것들』, 『잘 표현된 불행』, 2012. 문예중앙, 644쪽.
9. 이상익, 위의 논문, 103쪽.

To the Unknown Through the Unknown

: Yi Yunyi's Alchemy for the Exceptional

Sohyun Ahn

Director of The Art Space Pool

1.

Objects that resemble medical devices glitter in the dark space. A rod of light that looks as if one should jump over it in order to stay alive scans the body in *A Hurdle Scanner*, and X-ray and MRI of organs gleam behind it in *Pat on the Back and Snatch the Liver* and *Burnished Black Pottery*. In the corner stands a capital A that glows in red like some infrared medical heat lamp in *Big A*. A pair of A's stand side-by-side like a walker, but when approached closer, there's only one A that can be leaned against, and the other is an image reflected on the black mirror. Soon, one seems to figure out why there are two A's; it's apparent by the work *The Twelves Steps of Alcoholics Anonymous* where the 12 steps of Alcoholics Anonymous are projected on a pink translucent wall. And next to it, video work *October to June* releases convoluted gibbers about 'you'.

These are things that may be clues to something but haven't given any answers yet; they're riddles. It's not all that difficult to figure out these objects are consistently related to the incompleteness of the body. Furthermore, if one were to have seen Yi's past solo show *Client* (2018), or even for those who haven't seen it, they would naturally expect for the answers to the riddles to be in the video. Actually, we habitually try to solve the riddles of the images as a narrative, and such solution isn't wrong, at least in this exhibition. The preface for the exhibition makes it clear that these installations are metaphorical mechanisms that respond to the videos. All we have to do now, is pay a close attention to the video and solve the riddles.

Unfortunately, however, I have always been skeptical of this kind of exhibition method. Why does art have to be about 'solving' the artist's riddles? Are interpretation and criticism about getting the answers at best? Why do these installations consider themselves a supplementary mechanism to the video as opposed to talking through their own form? Perhaps the artist poured out all her energy in making the videos and these installations are just superfluous things she has created to physically fill up the exhibition space. Although physically manifesting a part of the video into an installation work is said to have become a common method in exhibition these days, can we say that the video and installation are indispensable to each other? The skepticism in me grew like a disease.

2.

October to June begins with a story about Yi's friend from the past who was hospitalized for abnormal behavior. The artist said she made the video as a reinterpretation of the 20 woodcut prints in a book about alchemy called *Rosarium Philosophorum* (1555). Alchemy? How surprising. What's more astounding than the fact that Yi calls forth a book published in 16th Century Germany in Korea in 2019, is that she chose a subject of which the concepts must first be laid out in order to delve into the subject, just like alchemy. This is remarkable because although Yi's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mysterious worlds like lucid dreams and past life, she traverses across such worlds with ease as if to draw a curtain or break through the fog. This time, on the other hand, the alchemy she has chosen is like a world that guarantees intellectual

fascination but comes with a long list of fine print. Filled with doubt, I began to read the fine print.

While alchemy for many signifies the cliché idea of 'absurd greed trapped in a dark room of experiments', researchers assert that alchemy is not something that originated from the desires to simply imitate or forge gold. Philosopher's stone, the most sought goal in alchemy, was a symbol that's very close to transmutation in both material and mind; therefore, in order to get the philosopher's stone, alchemists supposedly thought of the process of mental transmutations when imagining material ones.¹ And they trained themselves in inner healing to complete, within oneself, the process of change expected in matter. Mircea Eliade reads the changes in human brought by the alchemist ritual in a broader meaning: "*The meaning and finality of the Mysteries were the transmutation of man. By experience of initiatory death and resurrection, the initiate changed his mode of being (he became 'immortal').*"²

Carl Gustav Jung attempted to apply alchemical transformation on a more specific subject. Jung's *The Psychology of the Transference* explains the unique subconscious exchanges of emotions that frequently take place between the psychologist and his subject in psychoanalysis as a process of union of opposites in alchemy. Jung's commentary on the alchemical text is *Rosarium Philosophorum*, the text that captivated Yi. Jung, who emphasized the collective and prototypical unconsciousness, saw how alchemists inevitably projected psychological symbols 'without even realizing it' while acquiring knowledge of the process of transmutation in material throughout a long period of time. Jung explained the process of the core concept of 'individuation' in psychoanalysis through the 4 alchemical stages of Nigredo-Albedo-Citrinitas-Rubedo illustrated in the 20 woodcuts from *Rosarium Philosophorum*, and these four stages of individuation becomes the basic framework for Yi's *October to June*.

'Individuation' was a concept that's considered too general, so much so that arguments around it were so divergent. The word just means to 'distinguish' something from another. Scholastic philosophers argued about form and material in order to explain 'individuation', while Gilbert Simondon, in finding its principles, critiqued things that were overlooked as being natural, and thoroughly studied the physical,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dimensions one by one. Jung delved into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individuation, explaining it as a process through which the mind moves from the personal and collective unconsciousness to consciousness, and becomes integrated into a complete character.

"In general, it is the process by which individual beings are formed and differentiated [from other human beings]; in particular, it is the development of the psychological individual as a being distinct from the general, collective psychology."³

"Individuation has two principal aspects: in the first place it is an internal and subjective process of integration, and in the second it is an equally indispensable process of objective relationship."⁴

Here, Jung often explained "integration", one of the core concepts, as "wholeness". This means that if individuation takes place in the right way, it could reach a state where one feels at peace and non-fragmented, even if they don't reach a state of wholeness. If so, then what kind of individuation exactly has Yi, who has left her installations and video in a state of non-wholeness, been dreaming of? Can we expect a happy ending for her friend who was hospitalized for abnormal behavior? To arrive at some answers, we must inevitably look into the 4 stages of alchemy.

3.

Come to think of it, most of the objects that resembled medical devices in the exhibition were in the four colors of black, white, yellow and red. Questioning

what colors have anything to do with making the mind and body whole, I sat in front of *October to June* and started to focus on the work.

Text crawls up on a background of a sky filled with dark clouds. The text talks about an old friend whom the narrator meets in a crowd, who was weird and hospitalized in the end by friends and family after an incident. The friend was left confined to the hospital and recorded their deliriums all their life. In alchemy, the stage where matters of opposite natures clash and explode is referred to as Nigredo. Psychoanalysts interpret Nigredo as a state of psychological conflict, confusion, loss and depression. However, the attitude of the narrator, or 'myself' who observes this state of Nigredo, is a little strange. Although the narrator, or "I", claims that "you" from the crowd is creepy and intuitively freaky, the narrator makes sure to stress that "I was also", and looks for similarities between "I" and "You". Looking at "you" going through the stage of Nigredo, "I" for some reason smile cynically at my life and not yours, or at myself who has become buried in life.

*"I was also
merely spending my days,
going out and coming back,
hollering and mumbling,
bent over and fallen asleep,
just consuming and releasing"*

The scene change, and in the space surrounded by high fence, "this person" wanders around. This time, it's not text but a voice that very quietly whispers the same type of sentences, and again, the narrator also repeats similarities with "this person".

*"Just like me, this person is seeking some happiness for their life.
Just like me, this person is trying to avoid suffering in their life.
Just like me, this person has known sadness, loneliness and despair.
Just like me, this person is seeking to fulfill their needs.
Just like me, this person is learning about life.[...]"*

A strange voice comments "He seems weird", and another voice answers that's why he's shooting (the video of him). The camera, the whispering voice, and the strange voice, are all observing this confined person. In psychoanalysis, the process of rationally observing and identifying the subject is referred to as the stage of Albedo in alchemy. And the typical example of this stage would be the observation and interpretation of dreams.

However, in this stage of logical observation, there is a gaze on the observer and not the exceptional. A video of someone with a white mask on their face is cut out and "inserted" onto an inside shot of a catholic church. The mask is a common beauty mask, but the figure, blurred perhaps because of the mask, halfheartedly asks various questions to someone about the wine used in the catholic mass. The content of their conversation is logical, but it ends in silly laughs.

"Red wine? Well, it can't be white, right? After all, it's Jesus' blood."

Never situated within the context of faith and forcefully "inserted" into a religious space, their conversation is ridiculous and hilarious because it's so logical.

In the end, an icon from *Rosarium Philosophorum* which the artist alludes to appears in the work. An old man and two children with paper crowns on their heads sit around a table with white and red grapes. The camera suddenly shows people lying on the floor, and the text demonstrates active and concrete plans and intentions to be put into action.

"We became more hurt as we grew (declaring our failures)
so we decide to get the children to rehearse"

This demonstrates the stage of Citrinitas, which applies to proactive psychotherapy. When the subject of analysis enters this stage, their psychological state continuously changes because they start to explore themselves in a

more systematic way while maintaining their consciousness. The two children alternatively talk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people. For example, if the child on the right says "The difference between someone with both arms crossed", the other child on the left would say "and someone with one arm crossed." The symbols that fill the woodcuts in *Rosarium Philosophorum*, signified by the two children's postures, moustache and ribbon, are lined up like the words to deliver the messages.

But here also, Yi spreads out an inefaceable aura of failure over the video.

The children who rhythmically take turns reciting verses finish with a chorus saying "Similarity The living or Life" at the end. According to the rules of ancient plays, the chorus must reveal a wise insight into life. But the children clumsily mispronounce the word "Yoo-sa-sseong" (similarity) as "Yoo-sa-seong". The children talk about all sorts of differences that are easy to say but hard to do. Their pronunciation is difficult and for some reason foreign, as if to illustrate the fact that no matter how systematically we teach them through repetition and practice, they can never be taught how to not fall and not get hurt.

Finally, "your" journals written in the hospital begins. Someone is playing ping pong on a ping pong table and fence which fill up the lower half of the screen, while in the upper half, hand-written journal is turned page by page, montaged over a blanket as if the journal's been written on it. Along with the intermittent pixelated shots of "you" and images of the hospital that "you" seem to have taken, "you" write and talk about everything from ping pong, to cigarettes, sneakers "you" like, how "you" feel that day, and the doctors and nurses "you" love, one by one. "You" often change the color of your pen, and use many slangs and emoticons. "You" even worry about other patients who have been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nd haven't come back, and also about the wellbeing of your family outside of the hospital. "You" desperately wait for your beloved sneakers, but "you" give away those sneakers, loaded with history, to another person who's admitted into the hospital.

"You" demonstrate the typical transference towards your curer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treatment, but your journal entry stops on June 27th.

Again, it returns to the old man and the two children. The two children awkwardly recite the sentences again, and what they're saying seems to portray the last part of *Rosarium Philosophorum*. The old man pours out liquid and spoon-feeds it to the children and they cringe, perhaps because it tastes bad, but still swallows it. Rubedo, the fourth stage of alchemical transformation is a stage that nears completeness. In psychoanalysis, it's a stage where the ego is realized by actively and autonomously partaking in the treatment. It's also a stage where the self can contribute to community or coexist with others while comfortably maintaining one's own individuality.

However, Yi explains this stage of acceptance, or the awareness that nears healing, differently from how most people would call it as a return to "normalcy". The Chinese proverb she quotes is written in a nuance of enlightenment; however, it's quite distant from the common notion.

**"TENSION IS SOMEONE YOU THINK YOU MUST BECOME
AS YOURSELF, YOU'RE RELAXED
WHEN "MUST" CONTROLS YOUR LIFE,
YOUR HEALTH IS REPLACED WITH ILLNESS**

Replace health with illness? Yi brings in incompleteness again at the final stage of alchemy she has nearly completed. Five people sit around and repeatedly call each other's names as if in an Alcoholics Anonymous meeting, greeting each other and playing musical chair. They circle around with their faces covered, and then sit in a chair when the bell buzzes. A chair is removed in each round, leaving just one person at the end. The last person has survived, but he or she seems lonelier than at the beginning for some reason. As such, Yi's alchemy reaches the last stage of Rubedo, only to move away further from completeness as we commonly know it. "Your" actual last journal entry was July 7th, but "you" erased the date for

some reason. The title of the work is *October to June*, so there's no way of finding out what exactly happened in the July that disappeared, or if July ever did come to "you" at all. Having wished for "you" to get better since the beginning of the video, we can't help but feel a sense of emptiness and futility. After all that, the only thing that's left is the question "What exactly is wholeness?" I can't believe, after having gone through all the stages of Nigredo-Albedo-Citrinitas-Rubedo, what awaits us in the end is illness and loneliness.

4.

Dumbstruck by helplessness, but let's return to the beginning. We attempted to eliminate prejudices about alchemy. Scholars expressed that the alchemical way of explaining "the ambiguous through the ambiguous and the unknown through the unknown" could not be co-established with Enlightenment and scientific accuracy of chemistry since the 18th century.⁵ Reading psychological changes in the mixture of disparate matters may seem mysterious and esoteric in the present age, but in fact, such thoughts arose from the complete separation of psychology and physical chemistry. On the contrary, there was no such thing as choosing either one or the other (matter or mind) at the time; rather, it was in the territory between matter and mind.⁶

Here, the skepticism I had at the entrance of the exhibition started to soften up a bit. The medical device-like installations weren't just there to fill up space; they were pointing at the place in between matter and mind maintained in alchemy. Art in the digital world today (inappropriately) call video "immaterial art", and narrow down the realm of the material. Artists still use materials as medium, but rather than delving into how material leads psychological changes or how they can integrate material and psychological transformations, they try to turn material into a tool that faithfully succumbs to concept. Yi's installations, on the other hand, are a little different. They're not only mechanisms that complement or improve an imperfect body; they strive to locate themselves in between matter and mind. While they squirm to transform into meaning, they don't draw a line with matter. For instance, the 'liver' in Yi's work *Pat on the Back and Snatch the Liver* is a typical example of something that has been snatched, as liver often is in proverbs. However, "Snatch the Liver" in Korean sounds similar to "Liver Pottery", and the title *Burnished Black Liver Pottery* emphasizes the sense of the material that has been "Burnished Black". These works are definitely light puns, but they're never light in their meaning. Like similar devices, similar sounds don't bury the existence of material signifiers into the signified. The homonymic pun leaves behind a strange meaning beyond its legitimate signified, i.e., the crap of someone who knows not what to do in front of hypocritical relationships and broken bodies. When even the exhibition title *All Survived* is the homophonous epitaph that appears in the journals "you" wrote in the hospital in the video, how could the complex ulterior motives, shaped by such discrepancies, possibly be portrayed as legitimate sentences? Therefore, these joke-like installations and titles liven up,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the most basic signifiers that are generated from the material.

The red alphabet A takes the form and material that's suitable for assisting in walking, and it even lets out infrared rays which supposedly have curative effects, reflecting off the mirror and signifying how AA (Alcoholics Anonymous) treats the physical addiction of the body through the mind. The surface onto which the steps of AA is projected is made of pink rock salt bricks, a basic material (primitive substance) of alchemy along with sulfur and mercury. It's also an interior finishing in public saunas, considered to be good for the health by the local seniors.

Just when the flat red laser beam scanning straight over the alchemical symbols of the white hexagon tiles in the Window Gallery outside gives me a sense of relief that everything has returned to normal, white smoke billows up like clouds in front of the hexagon forms in salt. According to *Rosarium Philosophorum*, clouds appear at the point where the spirit rises. Yi meticulously places the colors of black, white, yellow and red in each of the bodies of installation, striving hard for alchemic transmutation whether it works or not. Her naïve faith, or unyielding

conviction, in the material, unhindered by the worldview of the majority, is as poetic as the epitaph of homonym or the MRI of a diseased liver.

The body that's not completed by concept keeps the element of the unknown.

A critic once said the following about a poem completely devoted to the body: "The body is strictly the ego itself, but at the same time, it's the other that constitutes the periphery of the ego. There's nothing stranger to an individual than their own body, and nothing that deviates further from their own will."⁷ The body is the other in itself, and through such excessive unfamiliarity, we learn how to treat others. Psychoanalysts said that the works of alchemists is about "forming a living relationship with the voice that responds to the 'other' within us, i.e. the unconsciousness, through a conversation with the inner world" via meditation and imagination.⁸

Here, one can carefully make an assumption as to why Yi would have been drawn to the alchemic interpretation of 'individuation' but at its last stage, chose a state that's far from completion. Maybe Yi learned how to accept the incomplete other and to recognize the resemblance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through the principle of alchemy that explains "the unknown through the unknown". Maybe this is why there was no need to know if her old friend came back to being normal and wa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We can only just observe his eternal process of individuation in the same way an alchemist treats matter or waits for the philosopher's stone. Rather than looking for a secret method of producing gold at the flash of light, it's about looking into that unknown world and our own hearts that change within it. He'll always be an exceptional who doesn't tie together with cases known to us.

Suddenly, this all seems to explain why Yi said "I heard you looked comfortable there" and why she went great lengths to describe "your" sensitivity in observing the world in the hospital, "your" sweetness in giving the nurse chocolate, and "your" sophisticated taste in selecting limited edition sneakers. It seems to make sense as to why Yi, at the last stage of Rubedo, would've returned to where it all started, replacing health with illness and leaving us with loneliness. It's similar to Simondon realizing how futile such a concept like the complete individual is, when he pointed out that individuation in itself is a 'process' rather than arguing the issues of the principle of individuation. When it's ambiguously left somewhere between matter and mind, rather than explaining matter as an element of narrative and solving the riddle to perfection, the emptiness in homonym is like what one feels when they hear a joke and tilt their heads. This is why "All Survived", as opposed to "All Figure out" or "All Better", is that much suspiciously unfamiliar yet touching. Come to think of it, Nigredo-Albedo-Citrinitas-Rubedo seems to have taken place in the process of writing this text. Having gone through the transitions of doubt, observation and thoughts on Yi, I was getting ready to replace health with illness even before I knew it.

1. Lee, Sangik. "Transference and Individuation Process in *Rosarium Philosophorum*", *Shimsungyeongu* (심성연구, *Study of the Mind*), 33:(2), 2018, Pp. 99-140.
2. Eliade, Mircea. *The Forge and the Crucib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 149.
3. Carl G. Jung, "Definitions," *Collected Works* 6, P. 757.
4. Carl G. Jung, "The Psychology of the Transference," *Collected Works* 16, P. 448.
5. Lee, Sangik. "Transference and Individuation Process in *Rosarium Philosophorum*", *Shimsungyeongu* (심성연구, *Study of the Mind*), 33:(2), 2018, P. 102.
6. Ibid., P. 103.
7. Hwang, Hyunsan. "Suffering of the Alienated Body-Lee Sung Bok, *Ah, Those Without a Mouth*", *Well-Expressed Misfortune*, 2012, *Munyejungang* (문예중앙, *Literature Center*), P. 644.
8. Lee, Sangik. "Transference and Individuation Process in *Rosarium Philosophorum*", *Shimsungyeongu* (심성연구, *Study of the Mind*), 33:(2), 2018, P.103.